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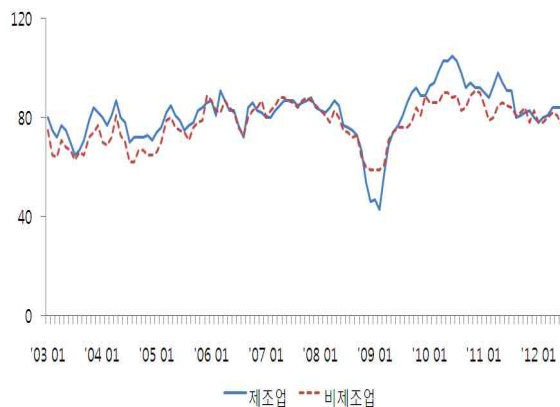
기업 · 소비자 경제심리 악화 추세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한국은행의 ‘6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 조사’에 따르면, 우리나라 기업들의 향후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전망이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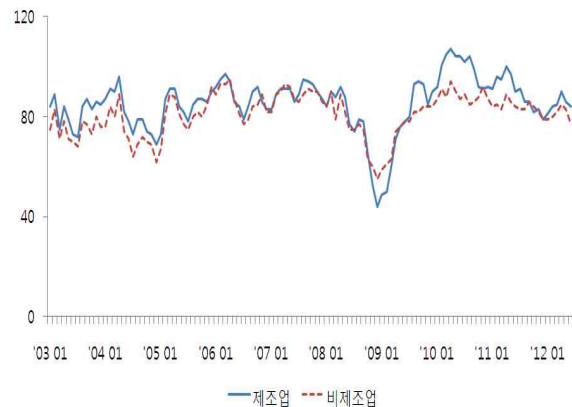
- 기업들의 현재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지수인 ‘6월 업황 실적 BSI’의 경우 제조업 기업은 84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비제조업 기업은 77로 전월대비 4p 하락함.
- 기업들의 향후 경영상황을 전망하는 지수인 ‘7월 업황 전망 BSI’의 경우 제조업 기업과 비제조업 기업이 모두 전월대비 각각 2p, 6p 하락한 84, 77을 기록함.

〈그림 1〉 업황 실적 BSI



자료: 한국은행.

〈그림 2〉 업황 전망 BSI



■ 또한, 기업과 소비자를 모두 포함한 민간 부문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.

- 기업과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를 나타내는 ‘6월 경제심리지수(ESI)’가 기업 및 소비자 심리지수의 동반 하락으로 전월대비 4p 하락한 97을 기록함.¹⁾

1) 경제심리지수(ESI)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와 소비자동향지수(CSI)를 합성해서 만든 지수이며, 100을 밑돌 경우 민간 경제 심리가 과거보다 냉각된 것을 의미함.

- 2010년 4월 경제심리지수(ESI)가 114를 기록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이후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냄.

〈그림 3〉 경제심리지수(ESI)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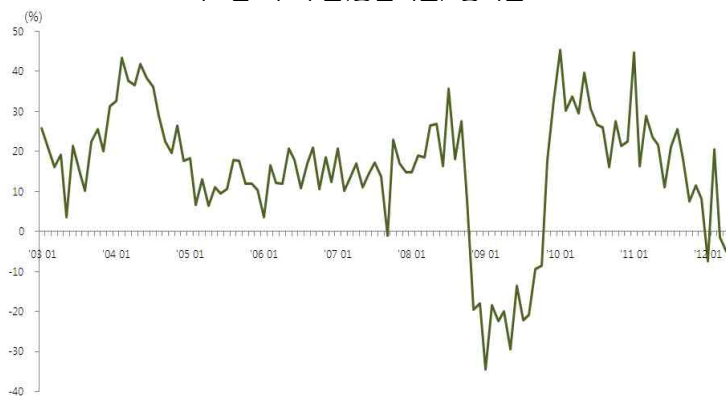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.

- 특히,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이 2012년 하반기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.

- 유럽 재정위기가 전 세계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2012년 들어 2월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.
- 산업연구원은 유럽 재정위기 심화 및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2011년 보다 16%p 하락한 3%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.²⁾

〈그림 3〉 수출(통관기준) 증가율



자료: 한국은행.

(2012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 및 경제심리지수(ESI) 등, 한은, 6/27)

2) 산업연구원(2012. 6), 「2012년 하반기 경제·산업 전망」.